



□ 그림 1) 공동 저본 배치안



□ 그림 2) 조선 국규 9256/1993조 저본구조

남과 북의 자모순 배열에서의 차이는 '이음'의 위치와 쌍자음 및 겹모음의 순서가 다르다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이음'의 경우 초성에서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히음'의 뒤로 배치해야 한다는 북의 입장과 중성에서는 음가를 가지고 역사적 전통으로 보았을 때 시옷 다음에 배치해야 한다는 남쪽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어 왔다. 겹자음의 경우 '쌍기역'(북한에서는 된기우이라 한다)은 해당 여린소리 다음에 이어서 배치하는 것이 남한의 맞춤법 통일안이고 별도의 기호로 보아 여린소리가 끝나는 다음부터 배열하는 것이 북한의 규범이었다. 이와 같은 배치가 사전의 올림말 순서와 같은 언어의 규범을 제외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순서를 찾다가나 순서 정렬과 같은 다른 전산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그러나 모든 언어규범을 통일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대한 혼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남북한 누구도 같이 통일을 운위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1995년 2차 대화부터는 언어규범의 전방적인 분야에 적용하기보다는 전산처리 분야에만 국한하기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전산용 자모순에서는 이음을 시옷 다음에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돌보인다. 초성에 쓰이는 '이음'은 소리값이 없어 '히음'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는 일관된 북의 주장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중성에서는 소리값을 가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자원의 구조와 배치

자판 구조와 배치 구조는 2벌식을 기준으로 26타건에 24개의 흘글자와 2개의 겹모음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옛글자 4자는 현대 글과는 별도로 처리하되

각각 해당 음가와 유사한 위치에 배치키로 하고 쌍자음 5자는 사용자 선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저본(통일보다는 공동안이란 표현을 쓰기로 하였다)의 자모 배치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개의 겹모음은 '이'와 '이'로 배치키로 잠정적인 합의를 했지만 '나'나 '니'와 같이 다른 겹모음으로 경찰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다른 겹모음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개의 겹모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른 합리적인 배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현 빈도나 3겹 모음의 2타건 단축 타건(예를 들면 '니', '니') 빈도에서 남북학자 어느 누구도 다른 겹모음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이'와 '이'가 포함된 26개 타건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합의된 공동안은 1년쯤의 상호 평가 과정을 거쳐 1997년에 확정된 기준안을 만든 후에 각각의 표준기관에 제안하여 국내규격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즉 한국 표준 KSC 5715/1983과 북한의 국규 9625/1993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한글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표준 규격을 제안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면 어느 일방이 아닌 명실공히 한민족 공동 사용안이 확정될 것이다.

글쓴이는 세 천년 처음의 한글날을 맞아 공동안을 지원하자는 자판을 설계하여 발표하고 북한에도 보낼 예정이다. 남북교류의 불씨가 타건 이때 이 안이 실질적인 남북 통일안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